

사랑하며 존경하는 박병동목사님 박수옥목사님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2월에는 공사 중인 기도실 10개를 지난번보다 좀 더 잘 지어보려고 애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워낙 태양이 뜨거운 곳이라 나무문은 쉽게 휘어지기도 하여 이번에는 철문을 달았고 문에 유리창도 조금 만들어 안이 너무 어둡지 않게 하였습니다.

늘 세례식을 하면서 교회에서 40분 정도 걸어야 하는 곳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사용하였는데 수질이 그리 깨끗한 편도 아니고 교인들이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교회 마당에 세례 물탱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감사하게도 한 시간에 열 드럼씩 계속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우물이 있어 물걱정은 없기에 세례 탱크를 만들었고 다음주에 7명에게 세례를 베풀 계획입니다

어려운 학생들 100명들을 후원하는 기관을 통해 이번에도 한 달분 양식과 각종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선택된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네 선교사들이 힘을 합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사역도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관악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악기는 거의 모아졌고 연습장소로 인해 고생하던 중 한 선교사님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이번 주부터는 제대로 막혀진 교실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현지 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한 시간에 기술 노동자 이틀 분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아이들이 잘 성장하면 생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습을 마치면 한 시간 성경공부를

시키고 그후 약간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악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영혼에 대한 열정이 더욱 불타는 심정으로 사역하도록
2. 교회와 기도원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3. 후배 선교사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도록

감사합니다.

케냐에서 박종렬선교사 올림